

## 【 해외금융 뉴스: 중국 】

### 보험업계, 종합금융그룹화 경쟁 본격화

- 최근 <보험회사 자산운용 관리 잠정시행법>(이하 자산운용관리법) 시행으로 보험업계의 종합금융그룹화가 한층 진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.
  - 보험업 이외에도 이미 은행, 신탁, 펀드, 증권업 등에 진출해 있는 중국핑안은 작년 말 기준 총자산 541억 위안, 신탁자산 1,308억 위안을 시현하며 괄목할 만한 외형성장을 보이고 있으며, 순이익 규모도 23억 위안에 달해 가장 내실있는 금융그룹으로 평가받고 있음.
  - 중국생명은행은 지난 2007년 신탁회사 인수 실패 이후 최근 펀드회사 설립 준비 TF(테스크포스)팀을 구성하는 등 펀드회사 설립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, 중국인민보험공사 역시 올해 초 14억위안을 투자해 중타이신탁(中泰信託)과 광따증권(光大證券)의 대주주인 따청펀드(大成基金) 지분 48%를 인수하는 등 지속적으로 타업종으로의 진출을 모색 중임.
  
- 특히, 보험업계는 자산운용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자산운용에 강점을 지닌 증권, 신탁, 펀드회사를 금융그룹에 편입하고 있으며, 이러한 경향은 향후에도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보임.
  - 주로 은행예금, 채권, 기금 등에 투자되고 있는 보험회사의 자산은 투자비중이 법률로 엄격히 제한되는 등 지금까지 매우 보수적으로 운용되고 있었음.
  - 또한 은행예금과 채권투자는 회사별로 수익률이 비슷한 반면, 주식투자는 운용 능력에 따라 수익률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은 자산운용에 강점을 지닌 증권, 신탁, 펀드회사를 그룹 내 자회사로 편입해 보험자산 운용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음.
  - 이번 자산운용관리법 발표로 보험자산의 주식투자 비중이 15%에서 20%로 확대됨에 따라 보험회사의 종합금융그룹화는 앞으로도 진전될 전망이다.

(매일경제신문, 8/23)